

데스크 시각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내년 총선(4월 10일)이 300일도 남지 않았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네거티브만이 유행했던 지난 대선과 닮은꼴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부터 지속된 여야 간의 정쟁은 이제 세로와 저주의 정지로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단 한 번의 회동도 갖지 않은 것은 물론 여야 대표 간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화와 협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서로가 정치적 타도의 대상이다. 최소한 민심의 눈치라도 볼 법도 한데 이 정도면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민생의 어려움을 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그야말로 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리스크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충돌하면서 내년 총선의 불확실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혁신 바람의 동력 되나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피로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인 없다는 부정적 비율이 3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거대 여야 정당의 지지율에 육박하는 수치도 나온다. 민심의 정치 불신은 사실상 고착화된 분위기다. 국회의

은편칼럼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 사서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독자들의 도서 구매 패턴이 대형 서점과 인터넷으로 고착화되면서 상당수의 오프라인 서점이 수익 악화를 겪어야 했다. 그중 일부는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휴·폐업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앤데믹과 함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동네 책방들이 우후죽순처럼 문을 열고 있다는 다소 생경한 뉴스도 전해진다. 이는 지역 서점 인증제, 우선 구매 제도의 정착, 문화 행사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 책방이 단순히 도서 판매를 위한 공간을 넘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독자들과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5일에는 애서가로 알려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평산책방' 개점 현판식이 열렸다. 이 책방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책, 책방, 도서관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책방지기로 일하며 '평산책방'이 저자와 독자가

기고



강택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 추진단 교육연구사

지금 학생들은 태어나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접하면서 종이 글을 읽는 것을 어려워하고 짧은 영상에 익숙해져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졌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한글 해독력이 낮아지는 요소로 작용했는데, 코로나19는 이러한 문제를 가속시켰다. 황산원 교수(대전을지대학교병원)는 아이들이 생후 8개월부터 '입술 읽기'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시각적인 언어 신호에 접근할 수 있는데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영유아들의 언어 발달이 더디다고 밝혔다. 만 4세에서 만 7세까지 마스크를 사용하고 지낸 유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서 학교는 기초 학력 부진을 넘어 발음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학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2층에는 광주 동·서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실이 있다. 오후 시간만 되

총선 농사와 호남 민심

원 선거 때마다 터져 나오는 '물갈이론'은 이번 총선에선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심의 저변에서는 이제 '물갈이'를 넘어 전면적인 '판갈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판갈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적대적 공생 관계에 기반 견고한 거대 양당 구도를 혁파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민심에 불을 붙이기에는 인물, 정체성, 지지 기반 등에서 폭발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지역을 기반으로 고착화된 양당 체제와 진영, 세대, 성별 등으로 다분화된 유권자 구도도 판갈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짐에 따라 투표를 저조로 인한 민심의 동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혁신 공천'을 토대로 하는 대폭적인 물갈이가 능력은 커지고 있다. 여당은 정권 안정론을,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겠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심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선점하는 측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생존을 위한 거대 양당의 혁신 공천 경쟁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 내년 총선의 화두를 '혁신과 변화'로 자리잡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호남 민심의 흐름이 주목되고 있다. 정치적 역동성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호남 민심은 수도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바람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호남 정치권은 혁신과 물갈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일각에서는 호남에서 시작되는 혁신 공천론을 내놓기도 한다. 핵심 지지 기반에서의 대폭적인 물갈

동네 책방과 책방지기

만나 토론하는 공간, 마을 주민 휴식 공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책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책을 갖추어 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를 말하는데 이와 비슷한 단어로는 서점, 서간, 서림, 서사, 책사, 책전, 책점 등이 있다. 이처럼 많은 의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단연 책방과 서점이다. 이와 같이 책방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묶어 대량 생산한 도서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장소'로서, 책을 구매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책을 상품으로 제공하여 판매하는 도서 유통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공간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책방이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1470년(성종1) 한명회가 승정원 교서관에서 책을 팔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책방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서사와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사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민영의 서사는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책을 간행하여 팔던 곳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관영 서사는 교서관 한 곳에서만 판매하는 수량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서, 책의 보급 부족을 매우기 위해 민간에게도 서적을 판매하는 서사를 인가하였다고 한다. 영조실록은 1771년 특별한 영입 전락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책을 팔아 조선 제일의 책 장수로 불린 조생이 등장한다. 책 속의 지식이 권력이 되던 시대에 지식을 나누는 것을 거부하던 조선의 지도층 아래, 민간 서점이 거의 없었던 당시 조선에도 책을 유통하던 주역이 있었던 것이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책을 팔던 서적

퇴직 교직원의 재능 기부

면 학교폭력 심의를 받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굳은 표정으로 방문한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부모와 동행 없이 혼자서 방문을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었다. 부모가 사정상 함께 하지 못한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 보호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보다 시급한 일이 있었을까? 부모가 함께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동행해줄 수 없었을까? A학교 교감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생을 일시 분리(3일)해야 하는데 따로 맡아 줄 분이 없어 본인이 직접 맡아 지도했다고 한다. 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학생 때문에 학교의 여러 일들이 모두 2-3일씩 늦어졌다면서 지원 인력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런데 학교 현장 밖에는 30년 이상 노하우를 쌓은 정년 퇴직한 교직원들이 많다. 그야말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적 자원이다. 한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 업무를 해왔기에 여행, 사진, 악기 등 취미 생활이나 건강 관리로 제2의 삶을 꾸리는 분들이 많다. 반면에 봉사 활동, 재능 기부 등 지역 사회나 이웃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노후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분들도 많다. 더 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수의 퇴직 교직원들로부터 학교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엇이든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민선 4기 광주시교육청이 설립 추진 중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요구와 재

이로 혁신 공천 드라이브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부터 물갈이론은 오히려 호남 민심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민심이 스며들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치 공학적 혁신 드라이브는 분열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의 호남에서의 '물갈이 물갈이'는 호남 정치의 실종이라는 후폭풍을 불러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치적 역동성은 보였지만 그로 인한 한계도 여실히 체험한 것이다. 호남 민심의 저변에 필성부른 중진을 키우고 신진을 발굴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한 이유다.

객도와 물갈이 불가피

농사에 있어 객도와 물갈이는 풍요로운 수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논이나 밭을 오래 사용하면 흙이 산성화되면서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다른 곳의 좋은 흙을 가져와 섞으면 중성화가 되어서 다시 농사를 지을 여건이 된다. 다른 흙을 가져온다는 뜻으로 객토(客土)라고 한다. 물갈이도 같은 논리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어서 제때 갈아줘야 작물이 튼튼하게 성장한다. 그러나 때를 맞춰 물을 빼고 채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과연 농사가 망조가 된다. 정치는 결국 사람 농사다. 정쟁의 가뭄과 장마가 이어진다고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총선은 어찌 보면 정치권에 대한 객도와 물갈이의 시기일 수도 있다. 쪽정이는 뽑아내고 적절한 객토와 물고 내기로 작물을 키우는 부지런한 농부의 지혜가 요구되는 셈이다. 군부 독재의 폭압과 차별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던 호남 민심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기치로 정쟁의 정치판에 변화를 이끌고 호남 정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社說

'침수 취약 지구'에 모래주머니도 없었다니

그제 오전 목포 지역에는 193.4mm의 비가 쏟아졌다. 시간당 44.2mm의 폭우였다. 오전 6시 몰래 고조기와 겹치며 빗물이 바다로 빠지지 않자 저지대인 목포시 석현동 석현삼거리 일대가 물에 잠겼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인 오전 9시경에야 무를 높이까지 차올랐던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2시간여가 지나 도로가 드러났다. 석현삼거리 일대 침수로 인해 인근 상가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중고 전자제품 판매 상점의 경우 판매를 위해 상점 앞에 진열해 놓은 냉장고와 세탁기가 빗물에 떠내려갔다. 주유소는 지하 유류 저장소에 빗물이 스며들어 정제비와 수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3000만 원 상당의 주유기 세 대와 4000만 원가량의 세차 기계 한 대도 망가졌다. 2년 전 일어난 석현동 침수 피해 후 설치한 양수기조차 빗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중고 전자제품 판매 상점과 주유소 등 상가 주인들은 밤새 가게로 들어오는 빗

물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상가 주인들은 석현삼거리의 목포시에서 지정한 침수 취약 지구임에도 모래주머니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목포시는 석현삼거리에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큰비가 예보됐다는 점에서 침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그런데도 모래주머니조차 준비하지 않았으니 단일한 대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구 온난화로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면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목포시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석현동이 저지대인 탓에 침수되기 쉽고 물매가 적어 하천으로 물을 방류하기가 힘든 지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내년에 설치할 예정인 지하 저류지와 지상 펌프장 공사를 서둘러 더 이상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산단 '지역 자원세' 부과 필요하다

여수·울산의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이는 국세는 연간 12조 4000억 원에 달하는데 지방세는 37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들 산단에서 잇따르는 각종 안전사고로 지역 주민들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지자체가 환경 개선에 나서려 해도 전체 세금의 97%가 국고에 귀속되다 보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 전남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 정제·저장 시설과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시설이 외부 불경제(外部不經濟)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외부 불경제는 어떤 경제 행위가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었으나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해나 환경 오염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 단계

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전남과 유사한 상황인 울산 등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건의하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각종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위험 시설 등 입지 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입법안이 통과되면 전남도의 세수는 연간 600억 원이 늘어나 재정난 타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경영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은 '화학고'라고 불릴 만큼 폭발·화재·유독 가스 누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배관 관리 등 안전 시스템은 엉성하기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 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을 석유 정제·관리 시설, 유해 화학 물질까지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 관리와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모티콘은 문자를 조합해 만든 그림 기호다. 감정이란 의미의 'emotion'과 조각을 뜻하는 'icon'을 합친 말로 우리말로로는 '그림말'이라 부른다. 감정을 표현하는 일종의 기호로 현대의 상형문자라 할 만하다. 디지털상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이모티콘은 :-)이다. 미국 카네기멜런대학교 스콧 펠만 교수가 1982년 9월 19일 전자 게시판에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국내에선 PC통신 초창기 하이텔과 천리안에서 사용된 ^^과 -_-이 최초라고 한다. 지구촌이든 국내든 최 '네'를 표현하는 이모티콘은 웃는 모음과 눈만도 냐, 냐, 냐, 냐 등 습을 형성화했다는 공통 무려 9000가지에 달한다. 이모티콘은 '스마일리'라고 하는데 동서양의 문화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서양에선 가로로 표현하다 보니 :-)이 됐고 동양에선 세로로 쓰다보니 ^^이 됐다. 동서양의 이모티콘 차이는 2012년도 수능 대비 특강 국어 교과서 지문에 등장하기도 했다. 동양식 이모티콘은 눈 모양을 중시하고 서양식 이모티콘은 입 모양을 중시하는데 얼굴 구조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동양인은 광대 근육이 얼굴의 낮은 위치에 있어 웃을 때 입 모양

이 크게 바뀌지 않아 눈을 통한 표정 묘사가 강조되고 서양인은 광대 근육이 높은 위치에 있어 웃을 때 눈보다 입이 먼저 웃어서 입 모양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카카오톡 등 SNS가 일상화되면서는 캐릭터형 이모티콘이 대세가 됐다. 카카오톡이 2011년 캐릭터형 이모티콘을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4억 5000여 개의 이모티콘이 탄생했다. 이모티콘이 일상 대화 속 감정 표현의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다. '네'를 표현하는 이모티콘만도 냐, 냐, 냐, 냐 등 무려 9000가지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카톡 이용자들이 채팅방에서 하루 평균 7000만 건의 이모티콘을 주고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 1회 이상 카톡 이용자가 4800만 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매일 한 차례 이상 이모티콘으로 감정 상태를 교환한 셈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마음 속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고르는 것이 소소한 일상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스마일리만 사용하고 있다니 TTTT. /정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주간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국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